명예기자석

명예기자석은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2~4매

◇서울·수원 본사편집실

외국 학문에 치우친 교육 풍토 우리의 역사·현실부터 시작해야

대학에서의 교수나 학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역사학이나 교육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서양의 고대·중세사나 러시아와 프랑스 혁명의 의의나 실체는 잘 알면서도 동학혁명의 우금치전투나 광주항쟁의 교훈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그리고 서구나 미국의 유명한 학자의 교육학이론이나 교육사회학 등이 말하는 내용은 잘 알면서 전교조의 민족·민주·인간교육의 지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니, 모르게 될 수 밖에 없는 풍토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나올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돌이켜 본다.

나로부터 현실에 기초한사고와 생활의 뿌리를 찾자는 것이다.

우금치 마루에서 도청앞 광장에서 생생한 역사의 현실을 체득하고 야학의 캄캄한 불빛과 자율학습의 캄캄한 학교에서 교육은 출발하는 것이다. 큰나라,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적 굴종의 사상, 자기 나라와 민족을 스스로 낮춰보고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 이것이 사대주의의 모습이며, 사람이 머저리가 되고 나라가 망하며 일을 그르치는 것이 결론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사고와 사회, 역사를 규정하는 사대성을 떨치고 우리의 뿌리, 자주적 태도와 관점을 이제 새삼스럽게 제시해 보며.

박 기 동
〈영교·3〉

국민학교 운동장에 쌓인 배추를 보고

동네 국민학교 운동장에 배추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한참이나 의아하게 생각했다.

당시는 그저 학교식당에서 쓸 거려니 하고 지나쳤으나 신문지상에서, TV에서 연일 보도하는 배추값 파동에 따른 배추한포기 사주기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았을땐 적잖이 놀랬다.

당장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자는 소비자들의 의도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어쩌다가 농산물의 수확량을 맞추지 못해 그러지 않아도 우루과이 라운드다 뭐다 하여 마음이 무거울 농민들이 생산비도 못 거두게 되어야만 했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

글쎄다 이렇게 당장 '배추 한포기 사주기' 등의 임기응변식 대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의심스럽고 그에 따른 농가의 손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도 걱정스럽다.

최 기 재
〈자연대 물리·2〉

화약고에 엽총을 들이대는 대도(大盜)
—— 물가인상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현재 우리사회에 불의를 빚고 있는 떼강도, 택시강도, 소위 팔망파, 삼성파니 하는 폭력배 집단들의 존재 속에서 '혼란기에는 도둑놈이 들끓는다'라는 말이 고금을 관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전의 여타 역사발전단계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대도(大盜)'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 어떤 떼도둑 보다 강한 '보이지 않는 대도'의 실체는 다름아닌 통화팽창과 자금의 왜곡된 흐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올들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부 물가는 20%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 한 해동안 뼈빠지게 일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소리도 없이 도둑질해 갔다.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밑천이라 할 수 있는 몸둥이 하나 밖에 남은 것이 없다.

최근 경제기획원에서도 지난해 3·4분기 도시근로자 한 가구당 소득평균이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명목소득이 13.7%로 상승한 반면 실질소득은 3·4%증가에 그쳐 8년 이후 실질소득 증가분이 최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물론 현 정부기관의 통계정책이 '과학을 동원한 허구성 조작'을 골간으로 해왔던 지금까지의 행태를 미루어 짐작컨데 실질소득상승률이 3·4% 이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상향조작된 이 수치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대도'의 도둑질이 이제 '거의 뭐 환상에 가깝다고나 할까'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가 아닌가.

독점재벌들의 비생산적 투기는 막지 못한채 각종 부양책과 금융실명제 포기, 작년 대비 18.9%난 늘어난 팽창예산, 계속누적되어 온 통화량 증발등 '보이지 않는 대도'의 활동 범위는 막지 못한채, 현 정부는 도둑질 당해 억울한 민중들에게 오히려 혐의를 돌려 벌금형 세금을 물리고 있다.

'도둑잡는 부패한 탐관오리는 도둑보다 더 무섭다'는 속담이 새삼 떠오른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작년말 민주노조파의 대거 등장과 함께 올봄 임투를 치열하게 진행할 것이며, 농민들은 수매가 제값받기와 UR저지투쟁을 통해 힘을 축적하고 있다.

꽉찬 화약고에 엽총을 쏘듯 정권과 자본가들의 독선적인 부의 유지와 악취미에서 튀어나오는 총탄이 분노와 힘의 축적을 통한 민중의 역량에 화기를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초부터 전개될 민중투쟁은 거대한 불길로 치솟아 대도와 그의 심복인 권력을 보조리 때려잡을 것이다.

조 동 건
〈원자·2〉

사대지망생의 적성 인성검사 폐지돼야

많은 사범대 지망생들에게 불안과 곤혹감을 낳게 했던 교직적성-인성 검사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 전혀 객관적 평가라고 보기 미흡한 문항들로 채워져 문교당국의 졸속행정 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

처음부터 기대한 바가 없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볼 수 밖에 없는 결과지만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냐'는 질문도 있었다 하니 막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없이 즉흥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대답의 유도로 일관된 이번 검사는, 노예교사 양성술책이라는 애초의 숱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이끌 새싹에의 교육'이라는 교직 특유의 사명감을 강조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문교당국에 대한 사대생, 입시생 및 학부모들의 마지막 기대마저도 좌절시켰다.

학교에서 참교육을 외치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명답안을 갖고 적성-인성검사를 시행하는 한 이미 그것은 실효성과 설득력을 잃었으며 따라서 철폐되어야만 할 것이다.

김 수 미
〈영교·1〉

연속된 흐름 위의 자기 중심적 약속

기도의 1월 주제 '新 年'

4년전 유학시절, 아시아계 학생들 사이에 아이를 가지려는 숨은 노력이 있었다. 나도 역시 유행에 민감한 속물인지라 둘째아이는 그때의 노력 덕택이었다. 이유는 그 다음해가 황룡(皇龍)띠라는 귀띔이 진지했고 힘든 유학시절이지만 어차피 가질 자식 뒤로미룰 이유가 없었다. 무진년(戊辰年)에 그 많은 임산부들을 뒤로하고 귀국하여 마침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 식구 모두가 현대화 된 까닭에 쉽게 넘어갔으나, 그때 한국서 아이를 갖고 미국에서 낳은 친구의 경우가 몹시 궁금하였다.

이름을 잘 지으려면 생일시(生日時)를 주게 되어 있는데 한국시각이 맞는지 미국 현지 시각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다. 워낙 극성인 그 친구는 좋다고 하는 시각에 분만하려는 특별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텐데 말이다. 새해부터 형이하학적인 이야기가 좋지않게 들리겠지만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어쨌든 회한의 시간은 가고 희망의 시간이 다가왔다.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인으로서 양력의 정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된다. 보신각 종이 33번 울리는 동안의 상징성을 누구보다도 크게보고 그 시간동안 특별히 많은 것을 기도하는 나로서도 그 시각의 허구성을 잘 안다. 서울에서 새해를 맞는 동안 부시는 첫 아침을 먹고 후세인은 마지막 저녁을 먹는다. 또한 화성의 E.T.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다. 작년에 안된 일이 금년에 잘 될리가 없고 작년의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리 없다. 정초란 그저 연속된 흐름위의 자기중심적인 약속인것 같다. 혼돈되어진 이 사회안에서 나도 내 중심적 결심을 해본다. 먼저 바꾸어 생각하려는 대상들이 많다. 북한, 미국, 소련, 일본등이다.

김 명 현
〈공대교수·원자력〉

어제 안된 일이 오늘 특별히 잘될리 없고 어제의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리 없지만…

북한은 주면 손해고 뺏으면 이익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나누어 가질 동포라고 생각해 보려 한다. 하루아침에 의식을 바꾸어도 곤란하겠지만 반공교육 세대인 나로서는 쉬운일이 아니다. 소련사람도 한국에 오고 우리도 가고 하지만 소시민인 나는 발톱만을 숨긴 독수리앞의 병아리같은 심정이다. 고정적 가치관을 수정하고 새감각을 가질 시각이다. 둘째로, 우리의 학생들이다. 학교에 대한 정부에 대해 불신만을 가진 행동주의자가 아닌 합리적 사고의 소유한 양심자들로 생각코자 한다. 소수의 선동에 의해 움직여 오지 않았음을 지난해 우리 학생들은 잘 보여 주었다.

대학의 주체가 교수, 학생, 교직원, 학교운영자 그 어느것도 아닌 학문과 전통임을 주장하고 싶다.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커리큘럼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시간이다. 세째, 나 자신의 능력이다. 비록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였어도 제대로 이룬것이 없는 나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올해는 작은 것을 계획하고 완성하여 자존심과 실천력을 회복하리라.

새해 첫 아침은 모든이로 하여금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기에 좋은 아침일게다. 공연한 줄 알지만 또 한번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아침이다.

알림터

◇고황골◇

생물과 일꾼고양

'제8대 학생회 일꾼교양'이 생물학과 학생회 주최로 과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1월9일~11일까지 3일동안과, 20, 21일 양일에 걸쳐서 열리는데, 과발전위원회를 통한 학자사업, 학추위 2대 통일사업 및 7대학생회 평가와 8대학생회 사업기획이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된다고.

두사 컴퓨터 특강

한의대 동아리 '두사'는 15일~20일까지 학생회관 1층 '두사'동아리방에서 컴퓨터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한의대 본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은 오전10시부터 12시.

의상학과 특강

의상학과 학생회는 오는 1월7일~2월초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스타일화' 특강을 실시한다.

10~15명의 인원을 모집하는 이번 특강의 수강료는 5만원으로, 7일 하루 접수를 받는다고.

한의대 신입생 예비교육

한의대 학생회는 보건·의료계열 신입생 3백명을 대상으로 1월19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예비교육을 실시한다.

◇서천골◇

방중스쿨버스 운행시간 확정·발표

총무과는 방학중 스쿨버스 운행시간을 확정, 발표하였다.

강남, 수원 신갈에서 학교로 등교하는 버스는 오전 9시, 10, 11시 세차례 운행하며 하교버스는 오후 1시, 3시, 5시에 출발한다.

2월2일(月)부터 정상 운행되는 스쿨버스는 토, 일, 공휴일엔 운행되지 않는다고.

또한 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경남여객의 직행버스도 방중임을 감안 운행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학교행 8:30, 9:00, 11:40, 13:00, 14:00, 15:00

남부터미널행 9:30, 10:00, 12:40, 14:00, 15:00, 16:00

체과대 공간조정 확정

학생회관 개관으로 생기게 된 체육과학관의 빈공간에 대한 공간조정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우체국 자리에는 스쿨버스 운전기사대기실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보건소 자리에는 증지판매소가, 학생처 자리에는 태권도장이 자리하게 되었으니 이용에 많은 편의바란다고.

방중 학사행정 정상

방학중 학사행정이 학기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각종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학적과는 오후4시까지 운영되며 다른부서도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반성과 새로운 출발에 대하여

새파랗던 잎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한번 신록의 무성함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만 남은 채 꿋꿋이 서 있는 교정의 나무들을 보며, 앞다투어 떠나가고 밀려오는 선배, 후배들을 지켜보는 요즈음은 반성과 새로나기의 시간이다.

대망의 90년대를 열어젖힌 기대와 희망의 1년이 마감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세번 반성하는 것은 힘든 일일테지만, 적어도 연말과 신년초에는 뭔가 착잡해지고, 또 새로운 기분에 들떠지기도 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힘찬 새로나기는 치밀한 반성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돌이켜 살핀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계급적, 사회적 상황속에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그 잘한 점과 못한 점을 평가하여 앞으로의 생활의 지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하기 싫고 관성적인 반성은 시간 낭비이며, 아니 함만 못하다는 것은 매사에 마찬가지이다. 반성과 평가의 중요성은 우리가 흔히 어떤일을 하고 난 후에 후회하는 데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후회는 항상 있는 일이지만, 치열한 자기 반성의 과정을 밟아가는 대학인에겐 끊임없이 비판되어지고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인' 즉, 청년 학생의 반성과 새로나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반성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임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바탕위에서라야 할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대학인은 각자의 목표에 대해서 언제라도 반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 똑같은 지위를 부여받은, 식민지 분단 조국의 청년 학생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대학인만이 보다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것이 현 시기 대학과 변혁 운동의 현실이며, 학생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물론, 이 모든 현실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 전반적인 제국주의와 자본의 문화 행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90년의 반성은 '대학인' 답게 좀 더 크고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삶들, 또한 나 자신의 평가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참다운 '대학인'으로서의 반성의 형식과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새로나기위한 근본적인 바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인으로서 우리는 사회와 이땅의 민중과 작게는 가족, 학우들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이해,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학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공동체문화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의해 균열되고 있는 것이다. 주변의 학우 동아리, 동문회에서 시작하여 학과단대, 경희대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이웃, 사회 나아가 민족과 민중이라는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황금만능과 인명 경시, 극단적 이기주의등의 외세와 자본의 문화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사회적 삶의 양식이며, 사회의 건강과 발전의 척도가 된다.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문화를 철저히 물리치고, 공동체적인 민족 자주문화를 건설하는 것은 새로따기위한 대학인의 기본적인 사명이라 할 것이다. 대학인의 반성과 새로나기는 치열한 자기 고민과 실천을 통해 오류를 극복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대학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다.

대학인의 순수와 패기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며,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언제나 새로 나고자 하는 몸짓들이 하나 둘 모여나갈때 우리는 캠퍼스 곳곳에서 참다운 대학인들과 넘쳐나오는 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민주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마당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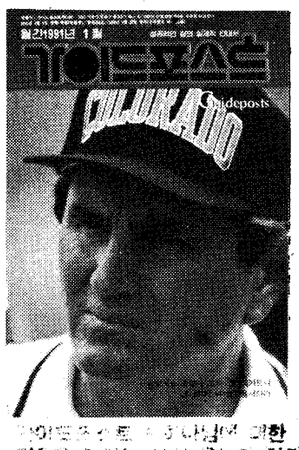
이 재 석
〈한의학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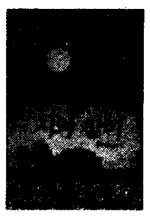
비판과 평가의 계기

돌이켜 살핀다는 것은 그 잘잘못을 평가하여 앞으로 생활의 지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Guideposts®

좋은 책에는 진실한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파고다는 메마른 당신의 삶에 또 한번의 감동으로 찾아 올 귀한 책을 엮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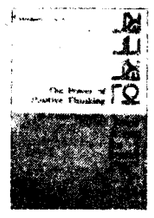




3 시와 찬미
영국, 미국의 유명한 목사, 신학자, 작가, 종교지인들에서부터 이름없는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삶 가운데서 부딪혔던 수많은 상황에서 느끼고, 감사하고, 지혜를 구하는 진솔한 신앙시들입니다.
• 英韓대역
• 값 2,500원

1 비젼
23년 동안 한국판 가이드포스트에 실렸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인생 지침서로서 사랑의 눈길로 나를 보고, 추위를 동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의 참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 현재 스포츠 서울에 절찬 연재중
• 노만 빈센트 필 지음
• 값 2,800원

4 왜 외로운가?
그동안 가이드포스트 고독시리즈에 실렸던 열세 사람의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외로움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 주며,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제시해 줍니다. 누구나 한번쯤 부딪치는 외로움의 순간, 귀중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 편집부 엮음
• 값 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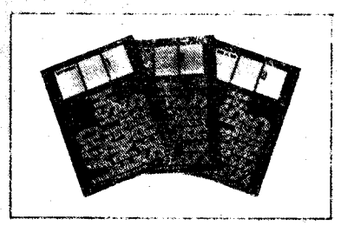
2 적극적인 사고방식
[illegible]
• 노만 빈센트 필 지음
• 英韓대역
• 값 2,500원

6 40일명상
바쁘게 살아가는 무의미한 생활속에서 하루하루의 의미를 값이 생각코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소소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극복하게 하는 유익한 책입니다. 40일후, 달라진 당신의 생활을 기대하십시오.
• 편집부 엮음
• 값 2,000원

도서출판 파고다
(代) 277-1213

"쉽고 빠르게 외국인과의 대화를 원하십니까?"
지금 곧 파고다외국어교재로 시작하십시오

LADO ENGLISH SERIES
(라도 잉글리시 시리즈)



최근 미국 Language School 제에 선풍을 일으킨 회화교재
• LADO Ⅰ 4,000원
• LADO Ⅱ 4,000원
• LADO Ⅲ 4,000원

A CONVERSATION BOOK
(컨버세이션 북)

파고다 외국어학원의 美人회화 S.L.E. program 채택교재
• A CONVERSATION BOOK Ⅰ 4,000원
• A CONVERSATION BOOK Ⅱ 4,000원

スクリーン
日本語(Ⅰ,Ⅱ)
(스크린 일본어(Ⅰ, Ⅱ))

일본어 기초 회화를 쉽게 배울 수 있는 AUDIO 교재
• 스크린 일본어 Ⅰ 3,000원
• 스크린 일본어 Ⅱ 3,000원
• 카세트 테이프 4개 각 2,000원

도서출판 파고다 서울시 종로2가 56-6 ☎ 277-1213